

(나운영의 생애)

# 내 손의 피가 마를 때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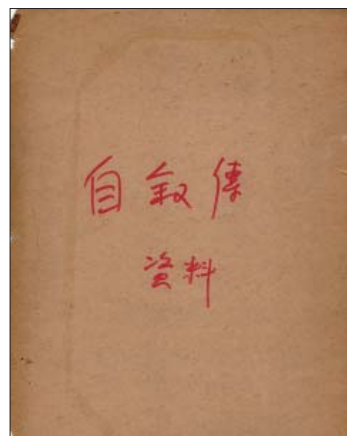
나운영기념사업회



## 머 리 말

나운영의 생애를 정리한 이 글은 나운영 자신이 자서전을 쓰기 위해 준비해 두었던 빛바랜 대학노트를 기본으로 하였다.

이 노트 겉표지에는 나운영이 직접 쓴 ‘자서전 자료’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이 자료는 1952년부터 1982년까지 30년 동안, 매년 있었던 일들을 상당히 꼼꼼하게 기록을 해 놓은 자료이다. 나운영은 1982년 자신의 회갑을 기념하는 논총論叢을 발간하면서 이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연보年譜 및 작품목록, 작곡발표회 등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었다.



이 글은 나운영 자신이 직접 정리한 이 연보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므로 결국 이 글은 나운영 자신의 자서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이 글은 나운영이 방송에서 직접 인터뷰한 육성자료와 신문, 잡지에 실린 기사들, 그리고 그가 남긴 4편의 수상집과 미처 출판하지 못했던 5번째 수상집 원고를 첨가하였으므로 지금 나운영 자신이 직접 자서전을 집필한다고 하여도 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나운영의 음악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후학들의 몫이 때문이다. 앞으로 나운영에 대한 연구가 학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며 나운영기념사업회에서는 일단 나운영의 생애를 연도별로 기록하고(편년체編年體), 앞에서 언급한대로 나운영 자신이 모아놓았던 자료들을 덧붙여 나운영의 삶을 기록하려고 한다.

나운영은 평소 입버릇처럼 “내 손의 피가 마를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천국으로 부를 때까지, 성가를 만들고 발표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었는데, 그가 말한 바 그대로 그는 그의 손에 피가 마르기까지 무려 1,000여곡이 넘는 찬송가를 작곡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다.

이러한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이 글의 제목을 「내 손의 피가 마를 때까지」라고 하였는데, 모쪼록 이 글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 그가 펜을 놓기 한 달 전에 남겼던 짤막한 메모 하나를 소개한다.

“작품은 나의 자서전이다.

먼 훗날 작품을 못 쓰게 될 때에나 자서전을 쓰련다.”

(1993. 9.23 나운영)

1962

외국 교향악 연주회

- 1. 11 안악태권생 축하회 대한합창단 출연
- 1. 12 안악태권생 노리 헌납
- 1. 13 예종 창립 기념 예술제 대한합창단 출연
- 1. 19 " "
- 2. 4 대한합창단 T.V. 방송
- 2. 10 「음악행사론」 출판기념회
- 2. 23 Opera · 혼동왕과 리날라공주 Melody 작곡 연주 (25~28 Metro Hotel)
- 3. 31 대한합창단 제9회 정기공연
- 4. 19 Symphony No. 2 Sketch 연주 ('Metro Hotel)  
제9교향곡 (Beethoven) 합창연주개시
- 4. 19 대한합창단 T.V. 방송
- 5. 6 Symphony No. 2 완성
- 5. 14 한국작곡가대 안악 Symphony No. 2 리휘 출연
- 5. 15 제9교향곡 (Beethoven) 연주
- 5. 17 " "
- 6. 4 조병옥 작곡발표회
- 6. 6 작곡법 2권 집필 (Savoy Hotel)
- 6. 28 대한합창단 제9회 정기공연
- 8. 21 제3회 교향악-가향악회 (21~25)
- 7. 18 작곡법 2권
- 10. 4 교수 승진
- 10. 6 대한합창단 수월 찬양공연
- 10. 8 대한합창단 백령도 시문공연 (8~10)
- 10. 24 이정희 작곡발표회
- 10. 29 한국회악비 심판회 홍동 (상암리회파)
- 11. 10 성수현 작곡발표회
- 11. 18 대한합창단 제10회 정기공연
- 11. 30 대한합창단 인선공연

8. 21 ~ 24 「우리 민요 합창 앙상블」 (중앙공보연주회)  
 10월 29일 안악 동양음악 (자바론), 동양음악 (인도)의 한국음악 (이해주)  
 한국민요 이야기 (김정현), 한국음악의 현대화와 최성적 (나윤영)  
 한국현대음악 (서수진)

[자서전 노트 중 1962년도 자필 기록]